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

(『바보 빅터』를 읽고)

김인우

나는 엄마의 추천으로 『바보 빅터』라는 책을 읽었다. 책의 처음 부분은 조금 지루했는데, 가면 갈수록 재미있었다. 재미있는 건 나만이 아니었다.

우리 형과 엄마도 재미있었다고 했다. 내가 재미있던 이유는 바보 빅터가 나랑 비슷한 모습 때문이다. 나도 나만의 생각을 자주 한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를 맑은 공기로 만드는 나무 로봇을 만들어 보는 생각, 꽃가루를 옮기는 로봇 꿀벌을 만들어 지구에 많은 꽃과 열매가 생기는 상상 등 다양한 생각을 했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혼자 생각으로만 했었다. 이런 생각들은 늘 나 혼자만의 놀이 같은 거였다.

하지만 빅터를 만난 나는 조금 변할 것 같다. 주인공 빅터는 말을 더듬고 남보다 느리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놀림을 받으며 자랐다. 특히, 중학교를 다닐 때에는 IQ 테스트 결과가 73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친구들은 돌고래 IQ라며 빅터를 괴롭혔다. 결국 빅터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도우며 생활을 했다.

빅터는 혼자 생각하고 만들고 문제 푸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빅터가 트럭을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의 광고판 비밀 문제를 풀게 되고 유명한 회사 애플리에 입사를 하게 된다. 광고판의 문제는 애플리의 회장이 특별한 인재를 뽑기 위한 채용 방법이었던 것이다.

바보라 놀림 받았던 것도 잊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중 빅터는 학창 시절 바보라고 제일 많이 놀리던 친구 더프를 만났다. 더프는 빅터의 IQ가 73이라고 회사에도 소문을 냈다. 그러던 중 빅터는 빅터를 바보라 믿었던 로널드 선생님께서 숫자를 착각해서 73으로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빅터의 IQ는 실제로 173이었던 것이다! 17년 동안 바보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천재였다. 그 후 빅터는 자신감을 얻어 말 더듬는 것도 사라지고, 멘사 회장의 자리까지 오른다.

나는 빅터가 포기하지 않고 끈끈하게 버텨 낼 수 있었던 것은 빅터의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빅터도 자신을 믿지 못했지만, 빅터의 아빠는 끝까지 빅터를 믿어 주었다. 천재도 바보라 생각하면 바보인 거고, 바보도 천재라 생각하면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나 스스로를 더욱 믿으며 자신감을 키워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믿음은 자신감을 키워 주고, 자신감은 나의 능력을 깨워 줄 날이 내게도 찾아오겠지?

지금 나의 모습은 남들에게는 ‘숨숨’ ‘삐삐’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집중 좀 하라며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가 많다. 하지만 ‘숨숨’ ‘삐삐’ 할 때, 나는 엄청난 상상을 하고 있다. 외계인도 되어

보고, 대통령도 되었다가 지구를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의 상상력도 멈춰 버린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빅터에게 배웠기 때문이다.